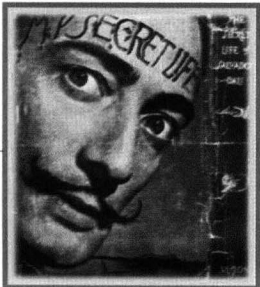


스페인, 칠레, 쿠바의 문화적 자존심을 책임지는
달리, 네루다, 카르펜티에르

Latin america, Spain

고혜선 | 단국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1
2
3
4



스페인어권 문화계에 2004년은 탄생 100주년을 맞는 세 명의 예술인들을 기리는 대대적 행사로 상당히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예술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들로, 태어난 날짜대로 이름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1904~1973), 쿠바의 소설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Alejo Carpentier, 1904~1980).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예술인들을 기리는 행사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의 문화수준을 선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 이런 저런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이들의 예술적인 경지를 다시 음미하고, 이들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 예술인들의 조국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살바도르 달리를 기리기 위해 2003년 10월 6일 스페인 국왕은 2004년이 '달리의 해'임을 공식으로 선언했으며, 스페인 문화계는 일련의 행사를 기획했다. 칠레도 뒤지지 않는다. 칠레 내에서의 '네루다 기념행사' 외에도 외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독려해서 '네루다 알리기' 혹은 '네루다 기념하기' 행사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가히 '문화수출'이라는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미국과의 꺾끄러운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쿠바 또한 '카르펜티에르 기념하기'에 뒷짐만을 지고 있지는 않다. 쿠바 작가동맹과 출판사 및 예술인들은 모든 행사의 초점을 카르펜티에르에게 맞추면서 자신들의 문호를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의 카탈루냐Cataluna 지방 피게라스Figueras에서 태어난 살바도르 달리는 눈을 향해 올라간 그의 수염이 보여주듯 기인(奇人)에 가까운 인물이다.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영화감독 루이스 부뉴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많은 전위예술을 실험한 달리는 파리의 초현실주의 화가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그 운동의 리더가 된다. 이 시대의 달리 그림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내용과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징주의를 담고 있으나 후에는 종교적, 역사적, 과학적인 요소를 도입하기도 했다. 달리는 단지 하나의 업만을 지속한 예술인이 아니다. 그는 영화를 각색하기도 했으며 조각을 하기도 했고 소설 수필 자서전 등을 남길 정도로 글재주가 좋았다. 이런 다재다능한 달리의 탄생 100주년은 스페인 출판계에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친구의 부인이었으나 결국 자신의 영원한 연인이며 부인으로 삼은 갈라테아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달리가 생전에 설립한 재단은 갈라-달리(Fundacion Gala-Dali)이다. 이 재단과 데스티노 출판사(Ediciones Destino)는 달리의 글을 모아 총 8권의 전집으로 출판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그 중의 3권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선을 보였다. 첫 권은 《일기》.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쓴 일기로 여기서는 정치적으로는 혁명적인 젊은 달리, 자신의 예술가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동질성을 찾아 헤매는 청년 달리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비밀의 삶》은 독특한 형태의 자서전으로 천재적인 달리,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한 인간 달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영어로 출판된 것을 달리가 프랑스로 옮긴 것으로 이번에 스페인어판으로 출판되었다. 세 번째는 《천재의 일기》로 앞의 두 책에 이어 1952년에서 1964년까지의 일기를 담고 있다. 여기서는 일상적인 하나의 인간인 달리, 자신과 동시대인을 때로는 예리하게 때로는 유머

1 2 3 4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 1904-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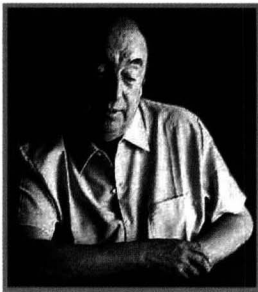
스럽게 관찰하는 달리를 만날 수 있다. 소설 출판으로 유명한 투스켓츠는 달리가 쓴 《밀렛의 '안젤루스'에 대한 비극적 신화》를 재출판했다. 1932년에서 1935년 사이에 프랑스로 쓴 이 책은 달리가 나치의 침략으로 인해 프랑스 도시를 허겁지겁 빠져 나오다가 분실한 것을 1963년에 되찾은 것으로 자신의 독특한 기법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네루다 기념행사는 작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시인의 사망 30주년이 되는 2003년에 칠레 정부는 문학에 공헌이 많은 이들을 위해 '국제 네루다 문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2003년 12월 31일 날 자정에 거대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안도시 발파라이소Valparaiso, 그리고 역시 해안에 있는 이슬라 네그라Isla Negra에 살았고 소라와 바다, 배와 뱃사람을 사랑했던 시인에 걸맞게 해변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 사용된 폭죽만 10톤이라면 그 규모가 어찌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만하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칠레 작가협회는 '네루다 탄생 100주년 자유토론 광장'을 개설하고 참가자 누구나 자유롭게 시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올해의 네루다 관련 행사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먼저 시작되었다. 시인이 자신의 본명인 네프탈리 레예스Neftali Reyes 대신 사용하기 시작한 필명 파블로 네루다의 네루다는 체코의 시인 이름에서 따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기념이라도 하듯이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1월 14일 네루다 기념행사를 거행하면서, '스페인어 문화원' 내에 '파블로 네루

이 글을 쓴 고혜선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인스티투토 카로 이 쿠에르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오리건 주립대학교 스페인어과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어문학부 스페인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동서양문학에 나타난 거울의 이미지 *El espejo en la Lit. Occidental*》(페루), 《메스티소의 나라들》 등이 있으며 《마당 깊은 집》,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베의 가족》, 《젊은 날의 초상》 등 우리 소설을 스페인어로 옮겼다.

Latin america, Spain

1
2
3
4



다 실실'을 설치했다. 또한 스페인의 알리칸테Alicante 대학교는 올해를 '네루다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4월 말에 '네루다 기념 시 낭송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탄생 100주년을 맞은 네루다는 이제 칠레라는 나라의 국경을 넘어 세계의 시인이 되고 있나 보다.

위의 두 사람에 비해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쿠바의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기념행사에는 모든 예술 장르가 망라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고전음악 그룹 '아르스 롱가Ars Longa'는 2004년 내내 자신들의 음악회를 '카르펜티에르'에게 바치겠다고 선언했으며, 국제 벽화인 '인테르노스InterNos'는 1월 13일에 제 6차 대회를 쿠바의 산티아고에서 거행하면서 작가를 기리기 위해 세 편의 벽화를 제작했다. 이 대회는 1월 27일까지 거행되는 행사의 대 주제를 '미술적 사실주의'로 정함으로써 현대 중남미 문학의 큰 흐름을 형성한 미술적 사실주의의 원조인 카르펜티에르를 기리고 있다. 웬 원조타령이나 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가르시아 마르케스로 대표되는 중남미 미술적 사실주의를 처음 시작한 이들이 바로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과테말라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Miguel Angel Asturias와 베네수엘라의 우슬라르 피에트리Uslar Pietri이다. 당시 파리에 있던 이들은 중남미의 주술인 기층문화 인디오 세계에 현실을 접목시킴으로써 중남미판 초현실주의인 이 운동의 첫 걸음을 디뎠다. 쿠바의 대표적 출판사인 '카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Casa de las Americas'는 카르펜티에르의 작품인 《하프와 그늘*El arpa y la sombra*》, 《스페인 수상*Criticas sobre Espana*》, 《열주의 도시*La ciudad de las columnas*》와 작가에 대한 연구서를 펴낼 예정이며, 그 밖에 작가의 육필 자료 사진을 전시하고 음악회와 영화를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카르펜티에르에 대한 행사는 스페인에서도 거행되고 있다. 스페인의 콤포스텔라Compostela 대학교는 카르펜티에르에 대한 연구서를 출판하고 '카르펜티에르와 스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 예정으로 되어 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가 되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걸맞게 이들 세 나라는 자신들의 대표적 예술가를 내세워서 자국 문화를 알리면서 동시에 '문화 선진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열심이다. 물론 스페인어권의 다른 나라들도 기회만 닿는다면 예술인 '띄우기'에 나설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부러움과 한숨이 함께 나오는 건 나만 겪는 일이 아닐 게다. **한글**

- 1 달리의 《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 그릇의 환영》, 1938년.
- 2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1904-1973).
- 3 4 쿠바의 소설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Alejo Carpentier, 1904-1980)와 그의 작품인 《하프와 그늘 *El arpa y la sombra*》.